

주현절 후 세번째 주일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3RD SUNDAY AFTER EPIPHANY

주후 2022년 1월 23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532 장 “구름 같은 이 세상” (새 483)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4 번 시편(Psalm) 8 편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555 장 “세 번 아멘”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김강석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마가복음(Mark) 121-28	금종각 집사
찬 양 Anthem	“He Leadeth Me”	찬양대
설 교 Sermon	“권세 있는 새 교훈” (A New Teaching with Authority)	김일선 목사
결단의찬양 Commitment Hymn	“주님 나라 임하시네”	다같이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53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새 317)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 Hymn	384 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새 585)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가 있는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참된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변화로부터 시작되지만, 어느새 우리는 익숙함과 식상함에 젖어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우리 마음의 완고함과 편협함을 버리지 못하고, 거짓됨과 교만함으로부터 돌이키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제는 결단하며 돌이키기 원하오니,

더 이상은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뜻을 좇아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엘 2:13)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이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한글개역 **막12:7**)

“The people were all so amazed that they asked each other, ‘What is this? A new teaching--and with authority! He even gives orders to evil spirits and they obey Him.’ ” (NIV **Mark 1:27**)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1/23 (주일)	1/24 (월)	1/25 (화)	1/26 (수)	1/27 (목)	1/28 (금)	1/29 (토)
	창24	창25	창26	창27	창28	창29	창30
본문	마23	마24	마25	마26	마27	마28	막1
	느13	에1	에2	에3	에4	에5	에6
	행23	행24	행25	행26	행27	행28	롬1

수/요/ 성/경/공/부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성경공부 (1/26 오후7:30)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삿11:1-11)
토요 새벽기도회 (1/29 오전6:30)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시67:1-7)

지난 주일(1/16) 말씀 – 박대웅 목사

“그리스도인의 순결과 순종”(단 6:10-16, 갈 1:6-9)

오늘날은 순결과 순종이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순결(Purity) 없이는, 순종(Obedience)이 애초부터 불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은 순결과 순종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보여줌으로써, (결국에는) 다리오 왕 조차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라”(단10:26)고 선포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니엘의 신앙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1)첫째, 우리는 몸과 마음과 영의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이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순결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2)둘째, 우리는 기도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다니엘은 항상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시간에, 무릎을 꿇고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3)셋째,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구원해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전히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커다란 사자굴의 위협을 받고 있지만, 유다 지파의 사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갈1:6-9)고 말씀한 것처럼, 변질되고 거짓된 ‘다른 복음’이 아닌, ‘순결하고 참된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온전한 순결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